日, 지역 이미지 컬러로 불교용품 제작

젊은 스님들의 디자인, 해외도 호응

고베시 지역 이미지컬러 활용해
승복 · 불교용품 등 기획해 제작
스님 모임 '코베 테라즈' 디자인
젊은 신도 교류위한 합동법회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의 개항지로도 유명한 항구도시 고베에서 만들어진 지역 이미지 컬러를 이용한 승복과 불교용품이 화제다. 젊은 스님들의 디자인과 기획으로 완성된 제품들로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고베신문은 지역과 함께하는 불교상품에 대해 보도했다.

고베시 개항 150주년을 기념해 고베의 이미지를 응축해 만들어진 색상 디자인인 '고베 타탄'. 고베 타탄은 항구도시인 고베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개항기의 흰 대리석, 정비된 도시를 상징하는 격자무늬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다. 고베 타탄은 이미 고베시의 대표 디자인으로 교복이나 설치미술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고베시의 젊은 스님들은 지역주민들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이 고베 타탄을 이용한 승복과 불교용품을 기획했다.

고베시 소재의 정토진종 사찰의 젊은 스님들의 모임들인 '코베 테라즈(Kobe寺s)'가 기획한 이번 제품들은 정토진종의 약식 가사인 윤가사(輪袈裟)와 염주주머니다. 코베 테라즈의 소에 잇토 스님은 "이전부터 사찰의 젊은 신도들 간의 교류를 위한 합동 법회 등을 해왔다. 이번 제품 제작도 젊은 세대와 지역사회에 불교가 녹아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속 불교의 역할과 지역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고베 타탄 윤가사'를 목에 건 스님들. 사진출처=고베신문

잇토 스님은 코로나 19의 심화로 법회나 행사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불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해 왔다고 토로했다. 모임에서도 고민에 대한 회의가 진행 되던 중 회원인 츠모리 슈쥰 스님이 코베 타탄을 이용한 제품을 건의했다. 슈쥰 스님은 "다른 사찰의 선배스님으로부터 '코베 타탄으로 뭔가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라고 들은 것이 기억났다"며 기획의 계기를 전했다.

코베 타탄의 상품권을 소유한 '코베 타탄 협의회' 측도 "사찰측에서 먼저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라 매우 놀라웠다. 분명 화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사용요청에 응했다"고 전했다. 종단 측에서도 스님들의 기획에 동의해 종단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내려졌다.

시제품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 등을 SNS로 광고한 결과 교계 안팎의 호응이 쏟아졌다. 슈쥰 스님은 "시제품으로 만든 염주 주머니 100개는 1개월 만에 완판됐다. 윤가사는 이미 일본각지로 판매는 물론, 미국 등의 해외교구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스님들의 가사를 본 신도들의 요청으로 신도용의 윤가사도 추가적으로 제작되어 판매됐다.

수익은 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코베 테라즈 측은 "지역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에 지역에 공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제품의 증산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中 틱톡내 '사찰 연예인' 계정 제한돼

〈TikTok〉

불교를 이용한 지나친 상업행위 논란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과 중국내 최대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인 '둬인(抖音)'에서 불교를 이용해 유명세를 모으던 '사찰 연예인'의 계정들을 정지 및 영구동결해 화제다. 10월 5일 일본의 'J-캐스트 트랜드' '라이브도어 뉴스' 등의 매체들은 중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소식을 전했다.

틱톡과 둬인 측은 "지난 9월 말까지 '사찰 연예인'으로 불리는 48 계정에 대해 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 중 7 계정은 영구동결했다. 또 이들이 올린 컨텐츠 중 148건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RED'에서도 비슷한 3계정이 정지되고 70개의 컨텐츠가 삭제됐다.

사찰 연예인이란 중국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찰을 참배하거나 불교와 관련된 사진, 영상, 메시지 등을 SNS에 올려 유명세를 얻은 인플루언서를 말한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여러 유명 사찰이나 스님들이 근황을 알리기 위한 SNS 계정들을 개설하면서 불교계 관련 컨텐츠가 급증했다. 특히 짧은 시간의 영상을 게시하는 틱톡과 둬인은 설법영상이나 사찰의 명소를 안내하는 영상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한 사찰 연예인들은 불교관련 컨텐츠를 이용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했다. 유명사찰을 참배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의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자신을 브랜딩했다. 심지어는 더욱 불교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 가사나 장삼과 같은 승복을 착용하거나 불보살의 상호를 따라한 화장을 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불교와 사찰을 이용해 자신을 브랜딩한 '사찰 연예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출처=라이브도어 뉴스

문제는 이러한 사찰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나친 상업광고, 혹은 개인 사업으로 이익을 챙겼단 점이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검소함과 금욕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이미지를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해외명품 브랜드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노출시키고, 일부 고급 불교용품을 가장한 고가의 액세서리나 의상 등에 대한 구매유도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부분 그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상품이 도착하지 않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구매자는 "신심이 깊어 보이는 사찰 연예인의 홍보라 믿고 구매했다. 그러나 도착한 상품을 보니 일반 소매상에선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는 조악한 상품이었다"고 증언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SNS를 통한 지나친 상업 활동이 논란이 일면서 당국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중국당국은 SNS 운영기업들에 대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계정들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찰 연예인들에 대한 계정 정지와 컨텐츠 삭제들 역시 당국의 요구에 따른 일환이나 해당 조치에 대해 불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공경받아야 할 사찰과 스님들, 불교문화가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의견을 공개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 역시 "불교가 자본주의에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더 빠른 규제가 필요했다"며 틱톡과 둬인의 조치에 환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맥코맥 박사, 예루살렘 국립대 교수 임명

비교종교학 · 아시아연구학과서 불교학 전승

유명한 부탄 승려이자 영화감독 겸 작가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Dzongsar Jamyang Khyentse Rinpoche)에 의해 설립된 켄체(Khyentse) 재단은 이언 맥코맥(Ian MacCormack · 사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국립대학교인 히브리대학교(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비교종교학 · 아시아연구학과의 불교학 교수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켄체 재단

해당 교수직은 켄체 재단의 후원을 통해 운용된다.

맥코맥 박사는 2018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신조 이토 박사의 불교학 펠로우연구원으로서 2년을 보냈다. 그는 티베트 역사 및 문학 연구를 중점으로 티베트의 초기 현대 종교와 정치를 전문 연구해 왔다.

또한 2015~2017년 하버드 신학대학(Harvard Divinity School)에서 강사로 역임하고, 버클리대학에서 박사후과정을 이수했다.

히브리대학 종교학과 부교수인 에비아스타 슐만(Eviastar shulman)은 "우리는 늘 티베트 불교에 대한 탁월한 전문지식과 역사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비교종교학 및 철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탐구할 수 있는 차세대 불교 전문가를 임명하길 고대해 왔다"며 "우리 대학에서 이언 맥코맥 박사를 고용하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맥코맥 박사는 우리 학생들과 티베트 역사와 문화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코맥 박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의 존경받는 교수진에 합류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오랫동안 존경해 온 티베트, 불교, 아시아학 전문과들과 함께 일하게 될 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켄체 재단을 통해 밝혔다.

한편 켄체 재단은 2001년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고 불교 연구 및 수행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켄체 재단을 설립한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1999년 영화 '컵' 연출 감독으로 데뷔한 후 같은 해 제4회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영화평론가 협회상과 제24회 토론회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고, 2004년 제6회 도빌아시아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말레이시아 켁록시 사원 화재…일부 소실

지난 12일 화재 발생, 인명 피해는 없어

지난 12일(현지 시간) 새벽 말레이시아 피낭섬에 있는 중국식 불교 사원인 켁록시(Kek Lok Si) 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



더선데일리(the sun daily)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낭 소방구조대 운영 책임자 무하마드 노리샴 이브라힘(Muhamad Norhisham Ibrahim)은 새벽 2시56분경 화재 신고 전화를 받고 파야 테루봉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노리샴 이브라힘은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불길이 사원의 건물 한 채를 집어 삼키고 있었다"며 "화재를 진압하기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소방구조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오전 6시경 완전히 진압됐고, 18.5㎡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번 화재에는 소방차 3대와 50여 명의 소방구조 인력이 투입됐다.

해당 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이자 동남아에서 가장 큰 중국식 불교 사찰로서 중요한 문화 관광 명소로 꼽힌다. 미얀마, 중국, 타이 등 3개국의 장인들이 1890년부터 1930년에 걸쳐 건축해 각국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다. 1000개가 넘는 계단을 통해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정상에 있는 36.57m의 관음상으로 유명하다. 박정현 객원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 마음 우리의 마음 월봉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운영 울산광역시 시립노인 요양원
주지 보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55번지(화정동)
052)251-4602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묵
사부대중일동
템플스테이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전화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